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 정-반-합의 구조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정과 반이 합으로 수렴한다' 이 정도의 배경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아니 사실 몰라도 괜찮다. 뒤에 설명해줄테니깐. 처음부터 이렇게 다짜고짜 던졌을 때는 뒤에 설명해줄거라는 믿음을 가지자. 그 설명이 불친절할수도, 과도한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설명은 해줄 것이다. 그 설명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알아듣는건 본인의 몫!!
-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게 대체 뭘말일까? 차분하게 이 말을 뜯어보자. 정립과 '반'정립은 누가 봐도 대립적인 두 범주로 보인다. 이 두 범주가 조화롭게 통일을 이룬다. 이걸 어렵게 표현해서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한 것이다. (수렴적/상향성 : '정립'과 '반정립' 두 범주를 수렴해서 상향적인 (더 나은) '종합'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 헤겔은 변증법을 논증의 방식을 너머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으로 보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변증법이 논증의 방식인거야 뭐 당연하지만, 이게 어떻게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일까? 뒤에서 이 질문에 답을 꼭!! 찾는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보자.
- 이념의 구조도 변증법적, 이념이 드러나는 현실도 변증법적이기에 둘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여기서 앞서 던졌던 질문이 어느정도 해결되는데, '이념'에 변증법을 적용하면 논증의 방식이 되고, '현실'에 변증법을 적용하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 된다. 이 체계도 변증법적 체계라는데, 그럼 뭐가 정이고 뭐가 반인지는 몰라도 이념과 현실은 정립과 반정립의 체계를 이룰 것이다. 그럼 합은 뭐냐고? 그건 아직 안나왔다. 앞으로 설명해줄 수도 있고, 설명 안해주면 문제는 안낼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COMMENT

어휘가 어려워 보인다고? 일단 차근차근 뜯어보자. 심찬우 선생님이 '축자적 의미'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워딩을 뜯어보자. '수렴'과 '상향' 각각의 의미는 다 알테니, 이를 이용해 정립과 반정립을 수렴해서 상향(발전)된 종합을 도출해낸다는게 수렴적 상향성의 의미이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㉞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 이제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다. 앞서 변증법이 뭘지 설명해줬으니, 이제는 헤겔이 미학을 어떻게 변증법으로 설명할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즉 예술, 종교, 철학 모두 절대정신의 형태라는 얘기다. 그럼 절대정신이 뭘데?

-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이다. 즉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이 절대정신이고, 예술, 종교, 철학은 모두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의 형태이다. 무슨 말이냐고? 인간은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형태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셋은 모두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할 것이다.

- 이제 절대정신의 세 형태 '예술·종교·철학'에 대응하는 형식인 '직관·표상·사유'에 대해 나온다. 형식과 형태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직관'은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므로, 주관이 개입될 틈이 없다. 그냥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상'은 대상이 있든 말든 마음속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표상 단계에서는 '대상'이라는 객관적 실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순도 100% 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COMMENT

사물을 감각적으로 인지·지각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기출에서도 보여준 적 있기 때문에 기억하자. 첨언하자면 감각적으로 인지·지각하는 과정은 객관적,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주관적이다.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기억해두면 좋다.

- 한편 '사유'는 대상을 오직 개념만으로 파악하는 뛰어난 논리적 지성이다. 철학자들이 개념 이런거 참 좋아하는데.. 뭔가 감각적 지각(직관)이나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심상(표상)보단 좋아보이는 느낌인데.. 애가 '합'에 해당하지 않을까? 어 그러면 직관과 표상은 '정'과 '반'에 해당하는건가?? 이정도 생각을 가지면 정말 좋겠지만..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다. 어차피 알아서 다 설명해줄테니...

- 여기가 이 지문의 핵심이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정신의 세 형식 '직관·표상·사유'에 각각 대응하며, 직관(예술)의 객관성과 종교(표상)의 주관성은 철학(사유)에서 종합되는 정-반-합 구조를 띤다. 드디어 헤겔이 어떻게 변증법을 미학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철학자답게 철학(사유)를 종합으로 뒀다. 요약하자면, 예술과 종교를 수렴해서 상향한 결과가 철학이고, 따라서 셋 중에서는 철학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헤겔의 생각이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 문단은 뭐.. 앞서 우리가 잡았던 내용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헤겔에게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념'이고, '사유'이면서 '철학'이다. 앞서 우리가 철학을 가장 발전된 단계인 '합'으로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헤겔은 철학을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보았다.
- 앞에서는 예술(직관)과 종교(표상) 중 뭐가 더 발전된 단계인지 못잡았는데, 이 문단에서는 종교(표상)가 예술(직관)보다 발전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지문에 서술된 대로 확실한 절대정신은 철학 뿐이고, 예술과 종교는 덜 완성된 상태이므로 철학이 등장하기 전이나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COMMENT

초반부를 제대로 잡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지문이다. 앞부분을 잘 이해해두면 뒷부분은 사실 수월하게 읽힌다. 정-반-합의 구조를 첫 문단에서 잘 잡고 그 개념을 밑을 밟아나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시피 예상했던 내용대로 지문을 서술해준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변증법은 '정'과 '반'의 특징이 각각 잘 살아서 '합'이 되어야 한다. 말이 어려워보이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단순하다. 종합은 '정'과 '반'의 특징이 잘 살아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합'이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은 앞서 (가) 지문에서도 잡았지만, 여기서는 업그레이드에 그치는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다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문화 융합을 생각해보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 이 지문의 핵심, 비판하기가 시작된다. 헤겔은 변증법은 1문단에서 서술한 대로 ‘정’과 ‘반’이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합’이라는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가 제시한 미학의 변증법적 논증에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온전하게 앎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얼핏 보기에는 직관-표상-사유와 이에 대응하는 예술-종교-철학의 구조는 변증법적 체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니, ‘정’과 ‘반’ 각각의 특성이 살아있는 상태로 ‘합’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합’에 해당하는 ‘철학(사유에 이르기까지 ‘예술(직관)’의 객관성(외면성)은 점차 사라지고 ‘종교(표상)’의 외면성(주관성)이 점차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럼 앞서 헤겔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각자의 특징이 살아있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다.

COMMENT

놀랍게도 이 길고 어려운 문단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별게 없다. 문단의 길이와 어려워보이는 어휘들에 쫓아서 밀줄 막 그으면서 내려가지 말고 차분하게 앞서 나온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어 내려가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 철학이 예술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주관성만 남아있으니, 거기에 예술을 다시 접목해 객관성을 살려서 완전한 ‘합’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많은 예술 작품들은 실제로 완성된 ‘합’인 사유를 통해 설명되니까, 예술을 통해서도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인 ‘사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의 요지이다.

COMMENT

흔하디 흔한 비판하기 구조이다. 비판하는 글은 필자가 어느 포인트에서 빈정이 상해서 판지를 거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읽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예술의 객관성이 사라진게 마음에 안들었으니까 어떻게 그 객관성을 살릴지를 중심으로 읽는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나)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나, (가)에는 상반된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시대적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가)와 (나) 어디에도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는 내용은 없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가)에는 통시적 변화 과정이 나타나있지 않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지만, 각각 직관·표상·사유 이라는 상이한 형식으로 절대적 진리를 인식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세계의 근원적 질서, 즉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가) 첫 문단에서 잡은 내용이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직관·표상·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으로 동일하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 즉 이념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가) 마지막 문단에서 잡은 내용이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OMMENT

직관·표상·사유가 뭔지 먼저 잡고 들어간다. 직관은 대상을 just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객관적'인 것이고, 표상은 대상과 전혀 관계없이 마음속으로 심상을 떠올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사유는 개념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논리적 지성이다.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시각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 대상인 '고향의 하늘'이 없는데도 마음 속으로 떠올리고 있으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둘 다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데도 마음 속으로 심상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시각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 대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지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역시 논리적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서 작품 창작을 기획하는 것이 사유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확실한건 직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관은 '객관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인데, 작품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이미 감각적인 지각 단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일 수 없다.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4번 선지를 잘 풀어냈다면 5번 선지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서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립-반정립-종합 ㉡ 예술-종교-철학

COMMENT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 묻는 문제이므로 온전히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미학 이론이 변증법 체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풀자.

- ㉠은 원래의 이상적인 변증법 체계이다. 반면 ㉡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변증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미학 변증법 체계이다. 필자는 ㉡의 ‘철학’ 단계에서 예술의 객관성이 사라지고 종교의 주관성만 남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든다. 이 포인트를 잡아내고 문제로 들어간다.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에서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하는 것은 자명하고, ㉡에서 예술과 종교는 객관성-주관성을 중심으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종합’은 수렴적 상향의 결과임을 기억하자.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철학도 예술과 종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완숙된 형태의 절대 정신이므로,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에서는 첫 번째 범주(정립)의 특성과 두 번째 범주(반정립)의 특성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종합)가 생성된다. 한편 ㉡에서는 앞서 봤듯이 첫 번째 범주(예술)의 특성인 점차 사라지고 두 번째 범주(종교)의 특성인 주관성이 점차 강해진다. 따라서 ㉡에서는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은 이상적인 변증법 체계이므로, 세 번째 범주인 ‘종합’에서 첫 번째(정립)와 두 번째 범주(반정립)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편 ㉡에서는 첫 번째 범주(예술)의 특성이 사라지므로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수렴적 상향성은 변증법이 갖는 특징이다. 정립과 반정립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는 채로 질적으로 고양된 상태인 종합으로 수렴하는 것이 수렴적 상향성인데, ㉡에서는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사라지므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두 번째 문단에서 ㉡에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필자의 견해를 묻는 문제임을 기억하자.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 는 말이 됩니다.

- ㉠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선지를 고르는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다. (나)의 글쓰기는 지금 헤겔의 미학 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입각해서 ㉠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보자. <보기>에서 헤겔은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 즉 예술이 초기에는 성숙하지 못했지만 완숙기에는 지성적 통찰이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되었다고 보았다. 헤겔은 분명 지문에서 예술은 객관성과 외면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는데, 내면이 성숙해짐에 따라 예술의 가치가 달라지면 주관성과 내면성도 특징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대충 알 것 같다. 분명 예술은 객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은 예술이 내면성도 특징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나) 지문에서 글쓰기는 세 번째 단계인 철학이 예술과 종교를 종합하지 못하고 종교의 주관성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화조차도 실패한 셈이다. 한편 보기에서는 괴테와 실러의 완숙기 작품들이 예술의 객관성, 직관의 외면성과 더불어 표상의 내면성도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두 범주를 중화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성적 통찰, 즉 사유를 통한 종합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이 보기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과도 맞지 않다. 그냥 우리가 잡은 내용과 다르면 일단 거르고 넘어가자. 나중에 답이 없으면 꼼꼼히 다시 보면 된다.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우리가 앞서 잡은 내용이다. 이론에서는 예술은 객관성에 대응하는데, <보기>에서 괴테와 실러의 작품들은 최고의 지성적 통찰, 즉 표상을 예술미, 즉 직관으로 승화시킨 '종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헤겔은 예술이 객관성과 직관의 외면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기>에서 헤겔이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예술이 표상의 내면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헤겔의 말에 뭔가 안맞는 점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글쓰기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괴테와 실러의 작품처럼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헤겔을 비판할 수 있다.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전혀 포인트와 맞지 않는 선지이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이 선지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보기>에서 헤겔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예술이 주관성을 지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예술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까? 헤겔은 애초에 예술의 본질이 객관성이라고 보았고, 완숙기 괴테와 실러의 작품은 객관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주관성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 '종합'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이건 애초에 필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필자는 예술이 재객관화를 통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COMMENT

이 문제에서 4번 선지를 선택한 학생은 33%로, 정답인 2번 선지를 선택한 학생 30%보다 더 많았다. 선지를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뜯어보자.

예술이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니는가? 예술의 본질은 객관성이다. (나)의 글쓴이가 비판한 것은 예술이 객관성을 잃어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종합'에 해당하는 철학 단계에서 예술의 특성인 객관성이 사라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다시 도입해서 객관성을 다시 추가해서 진정한 종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고...

대충 읽으면 '어 (나)의 글쓴이가 아까 객관성이 사라지고 주관성만 남았다고 했지!!' 하고 4번 선지를 고르게 될 수도 있다. 꼼꼼하게 선지를 읽자 제발.. 그리고 애초에 핵심을 잡고 내려갔으면 2번 선지가 4번 선지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